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2호 2001년 9월 1일 발행인 민상기

▶일본자료센터 행사정보

제2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본 일본센터에서는 격년제로 연구자료와 정보의 교환을 위해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학 연구의 현황과 미래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정치연구의 현황과 미래의 협력」이란 주제로 제2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8월23일 예비모임을 거쳐, 8월 24일 국제지역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加藤淳子(동경대학) 「일본에 있어서 정치가, 관료, 이익집단-일당지배의 변화인가 아닌가」, 박철희(일본국립정책대학원대학) 「전후일본정치연구의 연구과제와 연구방법의 변천」(이상 일본측), 김희덕(중국사회과학원일본연구소) 「중국에 있어서 일본정치연구

의 현황과 장래의 연구협력」(이상 중국측), 진창수(세종연구소) 「한국의 일본정치연구에 있어서 문제점」, 김영작(국민대학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에 있어서 일본연구의 동향-정치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본 회고와 전망」(이상 한국측)의 발표가 있었다.

이상 각국을 대표한 발표문을 중심으로 김세걸(아태평화재단), 송주명(한신대학교), 장인성(서울대학교), 최은봉(이화여자대학교), 조규철(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일본정치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도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행사를 통해 한일 양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포함한 한중일 삼국간에 상호이해의 폭이 더 한층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일본연구동향: 역사분야

韓國의 日本史 研究動向

-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박수철(서울대)

1. 머리말

어느 학문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았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상징은 전문학회와 전문학술지의 발행이다.

한국사의 경우, 전문학회 설립과 전문학술지 간행의 역사는 이미 193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동년 5월 〈震檀學會〉의 설립과 그해 11월에 간행되었던 전문학술지 《震檀學報》의 간행이 그것이다.¹⁾ 그 후 1952년 3월 부산에서 창립된 〈歷史學會〉의 창립은 국내 역사학계의 진전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歷史學報》에 실린 「歷史學會 經過報告」에 의하면, 國史(한국사) 3인, 동양사 3인, 서양사 3인 등이 발기하였으며, 국내 사학계의 공고한 결속과 국제적인 광범한 제휴를 꾀하여 역사학 건립의 기초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²⁾ 한국사와 더불어 동 서양사도 역사학의 한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역사학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동양사가 본격적으로 역사학의 한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동양사가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것은 그 후의 일로, 1965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同年 11월의 〈東洋史學會〉의 창립과 翌年 10월의 《東洋史學研究》라는 전문학술지의 발행이 그것이다.³⁾ 다만 이 때의 동양사는 주로 중국사를 지칭하였고, 실질적으로 일본사는 이 범위 외에 존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사의 경

우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늦어 1990년대 이르러 비로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의 〈韓日關係史研究會〉의 발족과 1994년의 〈日本歷史研究會〉란 전문학회의 창립이 그것이다.

1992년 7월에 발족한 〈한일관계사연구회〉의 「창간사」에 따르면, 과거 한일관계사 연구는 주로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식민사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왜곡된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일관계사연구회〉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연구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사를 정립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였다.⁴⁾ 한편 1994년 9월에 창립한 〈일본역사연구회〉는 일본을 바로 알기 위해 일본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와 요구를 채워 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을 못해왔다고 기존 연구활동을 비판한다. 그리하여 〈일본역사연구회〉는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전공분야만의 연구가 아닌 연구자 상호간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본사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⁵⁾

일본사의 연구가 늦어진 것은 주지한 바대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유산에 연유한다. 사회적 반일 기운이 팽배한 가운데 1960년대까지 학문적 축적이 없었던 일본사 연구는 1960년대 한일국교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사 분야를 중심으로 비로소 활성화된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한일고대사 및 일본고대사에 대해 다름대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고, 1980년 전후에는 일본사 그 자체문제를 본격적으로

1) 「震檀學會創立」, 『震檀學報』 1, 1934.

2) 「歷史學會 經過報告」, 『歷史學報』 1, 1952. p. 154.

3) 「東洋史學會創立經過」, 『東洋史學研究』 1, 1966.

4) 「創刊辭」, 『韓日關係史研究』 1, 1993.

분석하는 연구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82년의 이른바 「교과서 파동」으로 인해 일본의 본질을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자, 일본을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자각한 연구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일본 연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 전문학회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되었던 것이다.⁵⁾

본고에서는 1999년까지의 일본사와 관련되는 연구 논저를 중심으로 주로 연구성과를 시대별·내용별로 나누어 그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저서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저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사 연구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저서를 포함한 전체적인 연구동향의 분석은 보다 많은 기간과 시일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본고의 작성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다. 저서에 관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하고 싶으며, 우선 학술논문을 위주로 하여 대략적인 경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주로 1945년 이후 1999년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2. 日本史 연구의 年度別 분석

우선 논문의 분류방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문을 일본사 자체문제를 분석한 일반사와 한일간의 문제를 중심테마로 하는 한일관계사로 크게 양분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각각을 총설·자료, 고대, 중세, 근세, 근·현대라는 시대순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이에 포함되기 어려운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저서는 대체로 논문과 같은 체제를 따랐으나 중세 근세 분야의 연구가 적어 전근대와 근·현대로 구분하였다.

다만, 논문을 분류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기본적으로 논문제목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임으로, 분류자의 오식에 의해 잘못 분류된 논문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논문목록을 작성하는데 허

용된 시간이 많지 않아, 본의 아니게 누락된 논문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통계자료는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기존 연구의 경향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논문은 거의 망라되어 있고 일본사 연구성과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일관계사의 경우, 한국사로 분류되는 논문은 가능한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일본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거나 주로 일본사의 입장에서 쓰여진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여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것이 <표 1>이다. 이 <표 1>을 중심으로 일본사 연구의 경향과 흐름을 시기별로 살펴보자. <표 1>은 그간 발표된 논문편수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먼저 1960년대까지의 연구는 한일관계를 중심테마로 하고 있으며, 특히 근·현대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 그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일반사가 총9건인데 비해, 한일관계사의 근·현대사분야는 42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관계사는 그 외에도 근세사분야가 27건으로, 근·현대사 42건을 포함하면, 이 분야가 총 101건 중에서 69건을 차지하여 약 70% 가까운 수치를 점유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의 대다수의 논문이 한일관계사 근·현대사, 그리고 근세사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일관계사 근·현대사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경향은 1970년대 들어와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총 124건인데, 근·현대사의 한일관계사 관련 논문은 그 중 35건으로 일반사 및 다른 한일관계사분야를 통틀어 가장 많다. 또한 근·현대사 중심이란 연구경향은 일반사내에서도 확인된다. 일반사 총 22건의 논문 중 14건이 근·현대사분야의 연구로 전체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다만, 그와 동시에 눈에 띄는 1970년대의 현상은 근·현대사분야 중심이란 연구경향이 계속되면서도, 1970년대에 들어와 한일관계사 고대사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다는 사실이다. 1960년대까지 12건이었던 논문편

5) 「創刊辭」, 『日本歴史研究』 1, 1995.

6) 이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歴史學報》의 「回顧와 展望」 및 기존 논문 저서 등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국내 일본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여박동, 「한국에서의 일본사 연구」(『日本學年報』 2, 1989) 및 연구자의 박사학위취득을 중심으로 연구현황을 분석한 남기학, 「역사학의 일본연구」, 『한국의 일본연구: 1999년』(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 1999)을 참조할 것.

〈表 1〉年度別

연도		1960년대까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총 계
일반사	총설·자료	1	1	19	23	44
	고대	1	5	21	30	57
	중세	1	1	1	8	11
	근세	1	1	17	55	74
	근·현대	5	14	59	126	204
	소계	9	22	117	242	390
한일관계사	총설·자료	2	10	19	14	45
	고대	12	20	132	161	325
	중세	5	7	5	17	34
	근세	27	21	71	104	223
	근·현대	42	35	93	134	304
	소계	88	93	320	430	931
기타		4	9	19	59	91
총계		101	124	456	731	1412

수가 20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점은 근세사분야가 27건에서 21건으로, 근·현대사가 42건에서 35건으로 약간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45년 이후 1960년대까지 약 25여 년의 연구가 총 101건인데 비해 1970년대 10년간의 연구는 124건으로 논문편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사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역시 198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일본사 연구가 본격화하였다는 사실은 논문편수로도 확인할 수 있다.⁷⁾ 일본 자체문제를 다루는 일반사 논문편수만으로도 총 117건에 달해, 1970년대 총 논문편수인 124편에 육박하고 있다. 한일관계사의 경우도 1960년대 이전까지 87건, 1970년대의 93건였던 논문편수가, 1980년대에 이르러 총 320건이 발표되어 가히 ‘폭발적’인 급증을 보이고 있다.

전문학회의 설립과 전문학술지가 간행된 1990년대 한국의 일본사연구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 점은 일본사 그 자체문제에 천착하는 일반사 분야의 연구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반사 근세사분야의 급증이 주목된다. 고

대사분야의 경우 21건(1980년대)에서 30건으로 약간 증가한데 비해, 근세사의 경우 17건에서 55건으로 3배이상 급증하였다. 1990년대 연구성과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일반사 근세사분야의 성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근세의 해명은 단순히 근세 자체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현대 일본의 원류와 역사적 배경을 해명하는데도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근세사분야의 성장으로 일본 전체의 통사적 전망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국내 일본사학계의 중 장기 목표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근세사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는 이제 국내 일본사연구가 우리와 관련된 제한된 일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단계에서, 일본 그 자체를 객관적인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다루는 보다 심화된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이르러 일반사 근세사분야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한편 일반사 근·현대사분야의 경우도 1980년대 59건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126건으로 약 두 배 가량 성장하였다. 이 역시 근대 일본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반사의 경우, 한일

7) 국내 역사학의 연구성과와 동향을 정리 소개하는 《歷史學報》의 「회고와 전망」란에, 1985년 처음으로 「일본」이 동양사 항목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서술영역을 갖게 된 것은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金容德, 「回顧와 展望: 일본, 1979~1984」『歷史學報』108, 1985).

〈表 2〉 内容別

항목	분야	자료 · 연구동향	정치	경제	사회 · 교육	문화 · 종교	사상	기타	총계
일반사	총설 · 자료	15	5	0	6	5	3	10	44
	고대	8	30	2	3	10	3	1	57
	중세	1	9	1	0	0	0	0	11
	근세	6	20	18	9	7	12	2	74
	근 · 현대	28	85	15	23	4	45	4	204
	소계	58	149	36	41	26	63	17	390
한일관계사	총설 · 자료	1	0	19	7	6	2	10	45
	고대	42	170	3	8	75	11	16	325
	중세	0	29	2	0	0	3	0	34
	근세	19	113	24	4	18	37	8	223
	근 · 현대	23	115	56	48	10	46	6	304
	소계	85	427	104	67	109	99	40	931
기타		1	32	4	4	17	4	29	91
총계		144	608	144	112	152	166	86	1412

관계사의 논문편수에 비해 성장비율 면에서는 급경사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일관계사 분야 역시 132건에서 161건으로(고대사), 71건에서 104건으로(근세사), 93건에서 134건으로(근 · 현대사) 논문편수에서 여전히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사의 논문편수의 증가율에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총 456건의 논문중에서 한일관계사가 320편(일반사는 117편)으로 약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731편중 430편(일반사는 242편)으로 2배에 훨씬 못 미쳐, 양자간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 한일관계사의 논문편수가 줄어든 만큼 일반사 논문편수가 늘어나는 「제로-섬」관계가 아니라, 양자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히 일반사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는 이른바 「원-원」관계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연구현황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3. 日本史 연구의 内容別 분석

〈表 1〉이 기존 연구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表 2〉은 그것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전체적인 경향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일반사의 경우 390건인데 비해 한일관계사는 931건으로 두 배를 웃돌고 있다. 그 중 한일관계사의

고대사분야가 325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역시 한일관계사의 근 · 현대사분야가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한국의 일본사 연구는 한일관계사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것도 한일간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고대와 근 · 현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를 중심으로 일본사 연구의 경향과 흐름을 분야별 · 내용별로 살펴보자. 먼저 일반사와 한일관계사 모두 정치사 분야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412건 중에서 608건으로 과반수에 약간 미달하는 분량이다. 정치사분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야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자료 · 연구동향이 144건, 경제가 144건, 사회 · 교육이 112건, 문화 · 종교가 152건, 사상이 166건으로 대략 비슷한 분량을 점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각 시대사별 분야별로 다소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정치사분야의 경우, 한일관계사의 고대사분야가 170건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화 종교사 분야도 한일관계사 고대사분야가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문화 · 종교사의 경우 총 152건의 논문 중 약 과반수(75건)가 이 고대사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수' 내지 '전파' 한 방식으로 전개된 고대 한 · 일간의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이를 강조하는 입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정치사분야도 마찬가지이다. 倭의 실체를

둘러싼 廣開土大王碑文의 해석, 소위 「任那日本府」 문제 등을 포함한 한일간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역사학계로서는 식민사학의 왜곡된 한국사상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당면목표였으며, 이것이 한일관계사 고대사분야 특히 정치사 분야에 집중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초기 고대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자료·연구사분야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일역사교과서문제 내지 '任那' 문제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정리한 논문도 눈에 띈다.

그런데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분석하는데 치중한 연구가 일본 국내정치의 쟁문제를 분석하는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시점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이르러 단순히 정치사 위주의 전개과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古代律令制, 近世幕藩體制, 近代天皇制 등을 중심으로 그 구조도 관심을 갖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와 사회·교육, 사상사 분야의 경우는 한일관계사의 근·현대사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만, 사상사의 경우 일반사의 근·현대사가 45건으로 한일관계사의 근·현대사(46건)와 거의 비슷한 논문편수를 보이고 있다. 근대개항 이후 한일합방을 거쳐 식민지사회로 이어지는 기간에 관한 관심이 단순히 한일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이 왜 이와같은 제국주의로 전화하였는지, 일본 본질과 관련되는 핵심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는 舊韓末 日帝의 경제침탈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금·은 광산개발을 둘러싼 江戶幕府와 藩간의 갈등, 地租改正을 중심으로 한 명치정부의 경제정책 등 일본 경제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교육사 분야의 특징으로는 근세·근대의 촌락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주목되며, 특히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가 많이 보인다.

사상사의 경우는 한일관계사의 근세사분야가 총 166건 중에서 37건을 차지하여, 경제, 사회·교육, 문화·종교사와 달리, 전체 논문 중에서 이 근세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물론 사상

사 역시 한일관계사의 근·현대사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세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退溪學을 중심으로 유학의 일본전파를 강조한 연구와 정약용을 중심으로 한 실학자들 일본관을 분석한 연구가 눈에 띈다. 그 외 근대 문명개화사상에 대한 연구, 정한론을 중심으로 근대일본의 침략사상을 분석한 연구, 한일상인사상을 비교한 연구 등도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 분야별로 연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중세사라고 하는 점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중세사는 한일관계를 포함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현재에도 연구성과의 축적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세사는 일반사의 경우, 자료·연구동향이 1건, 정치사분야가 9건 경제사가 1건으로, 사회·교육, 문화·종교, 사상사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은 한일관계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치사분야가 29건 경제사 2건 사상사 3건이며, 자료·연구동향, 사회·교육, 문화·종교사분야는 1건도 없다. 이는 총 1412건의 논문 건수 중 중세사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45건에 불과하다고 하는 '절대빈곤'에서 초래하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세사의 연구 대부분이 단순히 정치적 과정을 서술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어, 중세 전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려는 분석이 부족하다. 「權門體制」論과 「領主制」論을 포함하여 중세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점은 중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고대사, 근세사 분야에도 해당된다. 고대율령제와 근세막번체제라고 하는 일본사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족하나마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또한 일반사와 한일관계사간의 격차도 줄어들어 다양한 주제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등 변화의 조짐이 점차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의 연구경향을 간단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 기준

국내 일본사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일관계사가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사연구가 자아의 확대·심화과정이라 할 때, 일본사 연구도 우선 우리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단계를 뛰어넘어 우리문화·국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한일관계사분야를 소홀히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일관계사분야 역시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으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에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연구의 불균형이 문제이며, 바로 이 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고대와 근대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 역시 한일관계사 편중이 가져온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일간에 가장 밀접한 교류를 보이는 고대와 근·현대시기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한일간의 교류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중세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의 우리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현대시기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 시기에 많은 연구자와 연구축적물이 나와 그 연구성과가 축적됨으로써, 현대일본사회와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와 동시에 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일본 중세·근세의 역사적 유산은 무엇이고, 그것이 근대에 이르러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하는 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능할 때, 근·현대사를 포함한 일본사의 全體像을 이해하는데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 근세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관심과 주제가 확장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만, 근세사의 경우, 광산, 어촌, 천황 등 연구주제·관심의 다양화와 심화는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 일본근세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천착하는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도 적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크게 미미한 실정이다. 중세사분야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중세사 연구의 절대적인 부족은 현재 국내 일본사 학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분야만에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이룬 일본역사연구를 위해서는 특히 이 중세사 부분에 좀 더 연구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자료 및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논문의 부족이다. 사료의 발굴, 기초자료의 정리라고 하는 역사학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宗家文書』를 중심으로 사료분석을 시도한 일부 연구가 있으나, 그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목록집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료, 공구서, 참고서의 소개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동향 역시 이른바 「任那」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사와 근대사, 그리고 역사교육에 집중되고 있어, 그 외의 각 시대의 주요 쟁점이나 현재 일본내의 최근동향에 대한 소개 역시 부족하다. 연구의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역시 좀 더 요망되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사학계의 과제로는 1) 중세사분야에 보다 연구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2) 일본사 본질과 관련되는 핵심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 3) 번역서를 포함하여 참고서 공구서 등 기초자료 발간, 1차사료의 체계적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다만, 국내 일본사연구가 현재, 단순한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그 변화를 요구받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한 지적만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다.*

8) 拙稿, 「回顧와 展望: 日本 1(前近代) 1999年度」, 『歴史學報』 167, 2000.

*이 글을 작성한 후 누락된 논문 중 일부를 보유로 실었다. 보유에 포함된 158건으로, 1412건을 합산하면 현재까지의 논문 편수는 총 1570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일관계사 중 한국사 위주로 된 논문은 기본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만약 이를 포함한다면 논문 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일본관련도서정보

2000년 하반기(7월~12월) 국내일본관계서적 출판 동향

차배근, 『개화기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 1』, 서울대학교출판부.

☞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일본으로 유학했던 해외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근대적 언론문물도 보고 배우면서 또한 자신들이 직접 발간했던 <친목회 회보> 등의 잡지들이,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언론문물의 수용과 그 생성,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들을 여러 각도에서 규명한 연구서.

김채수, 『글로벌시대 일본문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보고서.

박유하,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 사회평론.

☞ 일본을 키워드로 삼아 20세기 말 한국의 정신분석을 시도한 연구서. 언론과 몇몇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일본을 왜곡하고 있었는지를 비롯해 한일간의 현안을 둘러싼 담론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런 오해와 왜곡의 바탕이 된 우리의 일본관 및 이 모든 현상의 바탕에 있는 우리의 민족주의를 고찰.

강종식, 『다시 보는 일본신화』, 부산대학교출판부.

☞ <고사기>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천신과 그 천신에 봉사하는 국신에 대해 논했으며, 고사기의 계보가 고사기의 주제를 위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분석.

아부정로, 배정웅 譯, 『신사문화를 모르고 일본문화를 말할 수 있는가』

☞ 일본의 특징적인 문화인 신사문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저서.

한국역사교과서연구회 外 編,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 일본과 한국 양국의 역사교과서를 실제 수업에

서 어떻게 활용하고 성과를 올릴 것인가, 또 새로운 양국의 근대사 연구의 성과로부터 양국 사람들의 역사이해에 관한 연구동향, 최근 세계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민족문제와 비교해 일한 양국의 민족문제의 역사적 검토를 통해 대립을 만들어 내게 된 원인과 경과를 규명.

고영자, 『열려라 콩 일본사회 일본역사』, 탕자.

☞ 일본의 원시시대부터 室町막부 시대까지를 총망라한 책.

넬리 드레이, 안정미 譯, 『영원한 일본(시공 디스커버리 총서107)』, 시공사.

☞ 가미의 제국, 불교 문화, 궁정 예술 등을 주제로 180여장의 참고 사진 속의 유물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탐구했고 책 뒤의 <기록과 증언>에서는 일본 판화의 기법, 일본 정원의 비전서 등 일본의 문화, 전통 등을 개략적으로 다룸.

전운혁,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본영화 100』, 삼진기획.

☞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에서 아오야마 신지의 <유레카>에 이르기까지 일본영화의 대표작들을 망라한 폭넓고 충실한 안내서.

전상기, 『일본고대천황은 백제왕의 후손이다』

☞ 지문사. 왜곡되어 있는 백제와 일본역사에 대해 고찰한 연구서.

신현하, 『일본문학사(개정판)』, 보고서.

☞ 일본문학의 역사를 여러가지 표현 형태에 걸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술한 전공서. 상대(上代)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각 시대의 중요한 작품, 작자에 대해 상술하면서 그 시대의 특색과 관련하여 설명.

아스나 미즈호, 민성원 譯, 『일본문학의 오늘(대표작가13인의작품세계)』, 우석.

존 W. 홀, 박영재 譯, 『일본사』, 역민사.

유민화, 『일본서기 조선고유명표기자의 연구』, 해안.

☞『일본서기』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백제기, 백제신전, 백제본기 등의 백제사서와 그 밖의 조선관계 기사 중에서 국명, 지명, 관직명, 개인명 등의 고유명사를 전부 가려뽑아 그 곳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를 분석함으로써 고대조선자료의 성격을 추정하고, 〈일본서기〉 편찬에 즈음해 편찬자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고찰.

전대석 譯註, 『일본설화선(한반도관련)』, 경서원.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설화를 망라해 한 권에 집성한 책.

하세가와 마사야스, 최은봉 譯, 『일본의헌법(한림신서일본학총서13)』, 소하.

☞일본의 천황제를 비롯해 전쟁 포기, 의회제, 국민의 기본 인권과 같은 주요 논점에 의거해 헌법상의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체계적으로 살핀 책.

김본양사, 오태현 譯, 『일본의 건설산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일본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지양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한 이론서.

윤장섭, 『일본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년부터 저자가 직접 일본 각지를 방문하며, 중요한 전통 건축물들을 조사 수집한 내용과 전통 건축물을 촬영한 사진, 건축물을 본 소감을 기초로 만든 일본 전통건축사.

최선주, 『일본의 근대건축물 보전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최성근, 『일본의 기업경영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오쓰카 야스오, 이광준 譯, 『일본의 동양 의학(한림신서일본학총서 53)』, 소하.

☞이 책에서는 동양의학에서 볼 수 있는 증,방,음,양,허,실의 개념정의부터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다양한 질병에 어떤 한방약을 쓰는지, 일본 동양의학의 기초에 대하여 철저히 해설.

히로이 요시노리, 장인협 譯, 『일본의 사회보장(한림신서 일본학 총서 52)』, 소하.

☞일본의 사회보장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조망하면서 개별분야로서 의료 및 연금, 복지의 특징이나 문제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책.

다카하시 데츠야, 이규수 譯,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역사비평사.

☞도쿄대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볼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한 책.

고영자, 『일본의 지성 아쿠타가와류노스케』, 전남대학교출판부.

김기수, 『일본의 현대건축』, 이석미디어

S. 시그레이브 外, 강만지 譯, 『일본인도 모르는 천황의 얼굴』, 신영미디어.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다섯 세대에 걸친 일본 천황 가에 대한 최초의 전기.

아마 도시마로, 정형 譯,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 예문서원.

☞고대 이래 신도와 불교 속에서 스스로 무종교를 자처했던 일본인들의 종교행태를 분석하고, 종교 뿐만 아니라 일본사상 전반을 심도있게 연구한 저서.

미나미 히로시, 남근우 譯, 『일본인의 심리(한림신서일본학총서 4)』, 소하.

☞일본인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고방식과 표현양식 및 행동유형상의 중요한 특징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이론서.

루스 베네딕트, 서정완 譯, 『일본인의 행동패턴(한림신서일본학총서 57)』, 소화.

☞이 책은 일본군의 행동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시 일본인의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로 저자는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義理〉, 〈恩〉 등을 일본인 특유의 윤리기준으로 보고, 일본인의 정체를 밝히고 있음.

일본폐기물학회 編, 강영훈 譯, 『일본정부의 쓰레기 정책』, 제주대학교출판부.

한국여성문학인회 編, 『일본 그 슬픈 악연』, 답게.

☞지난 세기, 역사 속에서 일본이 맡았던 배역은 무엇이며, 군부가 장악했던 악의 뿌리와 국가권력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는가, 보다 넓고 깊은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하게 살핀 글모음.

임성규 編, 『일본 근·현대시』, 계명.

야마모토 후미오 外, 김재홍 譯, 『일본 매스 커뮤니케이션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일본 내의 신문과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잡지, 출판, 영화 분야 등을 총망라한 연구서.

강태훈, 『일본 외교정책의 이해』, 오름.

강태현, 『일본 전후 경제사』, 오름.

한상일, 『일본 지식인과 한국』, 오름.

☞일본 지식인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살핀 10편의 논문을 모아 엮은 책.

마스시타 게이이치, 최은봉 譯, 『전후 일본의 정치 행정구조(한림신서일본학총서48)』, 소화.

☞현재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일본의 정치, 행정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전후 일본의 헌법이 메이지 헌법적으로 운용되고 국회가 국정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료 내각제에서 국회 내각제로의 이행 등을 개혁의 해법을 제시.

이가라시 다키요시 外, 윤재선 譯, 『지방분권과 일본의 의회(한림신서일본학총서 49)』, 소화.

☞이 책은 권력이 중앙정부와 관료에 집중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지방분권화를 제시하며 개혁의 열쇠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있음을 강조.

남장근 外, 『최근 일본의 IT전략과 한일 협력 확대 방향』, 산업연구원.

홍인기, 『2001년 일본의 구조개혁과 금융시장』, 서울프레스.

☞일본의 금융개혁과정과 기업경영의 구조조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책.

김필동, 『21세기 길목에서 생각하는 전후일본』, 계명.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서술한 책.

2001년 상반기(1월~6월) 국내일본관계서적 출판동향

박원순,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아르케.

마루야마 마사오 外, 임성모 譯,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마루야마 마사오와 가토 슈이치가 문답으로 흥

미진진하게 펼치는 문화적 자립을 위한 번역론.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사회에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번역. 근대 일본의 지식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왜 번역했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

닛케이BP사 기술연구부 편, 성하묵 譯, 『변화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

☞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제작 배경과 그 뒷이야기를 비롯해 각 회사들의 사업 전략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현황 등을 알기쉽게 설명한 책.

권혁건, 『예술과 사진으로 보는 일본기행』, 제이앤씨.

☞ 일본의 예술과 문학과와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등을 비교 고찰한 기행문학서.

구키 슈조, 이윤정 譯, 『이키의 구조(일본문화연구 시리즈 1)』, 한일문화교류센터.

☞ 일본의 <사상>이라는 잡지의 제92호(1930.1월), 제93호(1930.2월)에 각각 게재되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엮은 책. 민족적 색채가 진한 <이키>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그들만의 문화와 의식구조를 유럽의 다른 나라의 언어와 비교하여 소개하면서 이키의 내면적 구조와 외면적 구조를 나란히 밝힘으로써 의식현상으로서의 이키에 대한 존재를 고찰.

미야모토 마타오 外, 정진성 譯, 『일본경영사』, 한울.

☞ 경영사학계의 다섯 명의 핵심적인 중견 연구자들이 일정한 틀을 공유하면서 최근의 연구성과를 풍부하게 사용해 일본경영사를 개관한 책.

마이클 포터, 신동욱 譯, 『일본경제 위기보고서』, 세종연구원.

☞ 저자는 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산업, 그리고 기업의 태도와 그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혜선, 『일본공산주의 운동과 천황제』, 국학자료원.

☞ 일본공산주의 운동을 천황제와 연결시켜 고찰한 연구서.

김필동, 『일본대중문화』, 새움.

☞ 일본대중문화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으며, 완전개방을 눈앞에 둔 일본대중문화의 한국시장 개방과정을 상세하게 정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外, 김옥 外 譯, 『일본대표문

학작품선집』, 문예춘추사.

☞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다자이 오사무, 야스오카 쇼타로, 아리시마 다케오 등 8명 일본 대표문학작가의 작품을 실음.

이원희 外, 『일본문학의 길라잡이』, 영남대학교출판부.

☞ 고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 대표적인 작품들의 문학사적 의미와 특색 등 일본 문학에 대해 소개한 책.

한영혜, 『일본사회개설』, 한울.

박영일, 『일본시장경제시스템:강점과 약점』, 인하대학교출판부.

가와타케 시게토시, 이응수 譯, 『일본연극사(상)』, 청우.

☞ 일본연극사 전반에 대해 고찰한 책.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를 배경으로 생성된 연극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 연관성을 규명.

아서 놀레티 外, 편장완 外, 『일본영화 다시 보기』, 시공사.

테사모리스 스즈키, 박우희 譯, 『일본의 경제사상』, 솔.

☞ 일본 경제사상의 전개를 폭넓게 개관한 개설서.

황경성 外,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 우리 나라와 여러 의미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이 사회보장의 사활을 걸고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를 상세하면서도 알기 쉽게 소개한 책.

문화이론연구소 編, 『일본인과 일본문화 이해』, 보고사.

☞ 일본인과 일본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일본 근현대사 주요 사건해설 및 일본의 현대문화, 문예 용어의 키워드를 수록.

이면우, 『일본정치의 보수화 현상과 안보정책에의

영향』, 세종연구소.

☞일본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화 현상을 원론적 보수화의 정의를 기본으로 현재 보수화 경향의 정책 성립이나 관련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보수화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보수화 경향이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정광호, 『일본침략시기의 한·일 불교 관계사』, 아름다운세상.

☞일본 침략 시기의 한·일 불교에 대해 고찰한 책.

일본노동운동연구회 編,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해』, 원민.

☞일본 노동운동 가운데 가장 과격한 노동전선의 구축을 주장했던 일본 국철 동력차 노동조합의 리더인 마쓰자키 아키라의 저서 <노동운동의 실천과 이론 1, 2, 3> 중의 일부를 선별해 번역한 책.

우스이 요시미, 고재석 外 譯, 『일본 다이쇼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나카무라 미쓰오, 고재석 外 譯, 『일본 메이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히라노 겐, 고재석 外 譯, 『일본 쇼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요모타 이누히코, 박전열 譯, 『일본 영화의 이해』, 현암사.

이강렬, 『일본 현대 연극사』,

☞일본 현대 연극예술의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기술.

신용석, 『일본 형사재판의 실제』, 세종출판사.

☞저자가 견학을 통하여 일본에서 형사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정리한 책.

한국문학연구학회 編,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문학』, 국학자료원.

☞문학적 담론을 통해 근대화를 담보로 한일 양국 관계 속에서 빚어진 불평등과, 그로 인한 식민지 문화의 왜곡된 국면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서.

이시재 外, 『현대일본사회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진성,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나남.

☞일본사회와 사회운동의 특성을 설명한 책.

구건서, 『현대 일본사회의 이해』, 한울.

☞이 책은 일본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20세기를 장식했던 일본사회의 원형을 학문적으로 고찰.

요시노 고사쿠, 김태영 譯,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일본어뱅크.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창조, 재구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문화 내셔널리즘의 측면과 현대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인론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

이원희, 『현대 일본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T.J. 펴펠, 최은봉 譯, 『현대 일본의 체제 이행』, 을유문화사.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이행하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서 충격적인 동요를 일으킨 변화의 양상들을 포착하고 분석한 책.

나카소네 야스히로, 박철희 外 譯,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 시공사.

☞일본의 전 총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21세기 일본 국가전략에 대한 의견서.

『Korea-Japan Security Relations』, 오름.

● 문 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schpark@sias.snu.ac.kr

Homepage <http://sias.snu.ac.kr/japan/>